

1. “<가>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지하고 애도한다. 또한,<다>의 사름들도 죽음을 인지하고 시체를 묘에 안착하는 식으로 대처한다.”

이 부분에서, 주장만 있을 뿐 <가>에 대한 근거가 답안에 서술되어 있지 않네요.

<가>가 죽음을 왜 인지하는지, 즉 인간만이 동물의 본능이 약화된 존재로 특수성이 있기 '때문에' 라는 점을 지적해주셔야 합니다.

2. “죽음에 대한 생각이 죽음을 유발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지양하고있다.”

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, 제시문의 어느 부분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죽음을 유발한다고 서술되어 있었나요? 논리적 비약으로 보여집니다.

3. “<가>의 사람들은 매장을 통해 죽은 자를 영구히 존속시키기 때문에 이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한다.”

마지막 문단이 아주 좋은 비교인데요, 여기가 약간 아쉬운 게 <가>에서 매장은 인간만이 자연(다른 동물들에 비해) 본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.

그렇다면 매장을 하는 인간, 즉 본능이 약화된 인간은 자연에 거스르고 있는가? 이걸 제시문 상에 있는 내용이기에 맞는 부분이구요. 즉, 결론 자체는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비교이지만 논거 자체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. 더 발전할 수 있거든요.

4. 전체적으로 좋은 글이고, 합격 수준의 글로 보여 집니다. 특히 기본적인 비교를 모두 한 뒤, 마지막 문단은 수준급의 비교로 보여 집니다. 플러스 점수의 요인이네요.

5. 이 문제는 난도가 낮은(중하) 기출문제로, 연대 기출문제 중에서는 입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앞으로 기본에 충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네요.